

독일서 온 저널리스트

이영남 한민족네트워크 대표
남도여성포럼 발제

“글로벌 시대, 다문화는 단점 아닌 장점”

“다문화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병행해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를 앞서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최순애) 주최로 지난 23일 열린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남도여성포럼’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이영남(독일·저널리스트, 한민족 네트워크 대표·사진)씨는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 1974년 파독간호사로 독일에 건너간 이후 30여 년 동안 가장 힘든 점은 역시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었다”는 이대표는 두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극복해 장점으로 승화시키면 누구보다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자신은 먼저 아이들에게 한국적인 면을 자꾸 가르쳤다”면서 “한국말이나 문화를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양쪽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이중 정체성’을 키워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설명했다.

또 이대표는 “신혼초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독일인 남편과 잦은 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며 다문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국적과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내 아내·내 남편·내 자녀·내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과 존중의 토대위에서 힘을 합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행복한 다문화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항상 생각하고 마음

에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날 참석한 다문화 주부들에게 “차별대우와 편견이 가장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그 어떤 경우라도 한국에 올 때 가졌던 꿈을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그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최순애 전남여성플라자 원장은 “이 대표가 다문화를 장점으로 승화시켜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로써 이혼이 아닌 실제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보내 다문화 가정에 생생하게 전달했다”며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한다는 메시지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목포=고국석기자 yousou@kwangju.co.kr

광주과기원 최희철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최희철(사진) 교수가 2012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최 교수는 세계과학계의 화두인 나노기술과 환경공학 기술을 융합한 우리나라 환경나노공학 분야를 개척했고, 현재 기술발전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환경공학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올해 정회원에 선정됐다.

최 교수는 현재 미국 토목학회(ASCE) 산하 SCI 학술지인 환경공학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물협회 최상위 위원회인 국제프로그램위원회 한국대표위원을 맡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취약계층 돕기 자선골프대회

오늘 애플리안 광산CC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안 광산CC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애플리안 광산CC(이하 광산CC)는 26일 오전 8시부터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조대상자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관내 주요인사 및 우수고객 등 80명을 초청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린피(Green Fee)를 받지 않는 대신 모금함을 설치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행사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광산CC는 광산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난해 6월 개장한 대중골프장으로 노게다, 수동 카트방식을 도입해 부대비용없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광산CC는 인근 지역 골프 선수와 골퍼 꿈나무에게 무료로 코스를 개방하여 연간 100여명의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광산CC는 이번 모금한 성금을 관내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광산구 회마복지지원단에 전액 전달할 예정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전남 채상장 서신정·장도장 한상봉씨 代 이어 무형문화재 지정

대를 이어 예술 혼을 있고 있는 지역 장인들이 화제다. 아버지를 도와 전통공예의 가업을 이었던 장인들이 잇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대바구니)에 서신정(여·52·사진 왼쪽)씨와 제60호 장도장(粧刀匠·낙죽장도)에 한상봉(52·오른쪽)씨가 각각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정·고시됐다.

채상장 서씨는 보유자 서한규 장인의 딸로 채상기능에 대한 전승 능력 등이 탁월해 채상장의 기능보유자 인정까지 평가를 받았다. 서씨는 1998년부터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돼 가업을 이어왔다.

채상장은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의 물을 들어 다채로운 기하학적 무늬로 고리나 바구니 등을 엮는 장인을 말한다.

채상은 크기에 따라 삼합, 오합, 칠합 등이 있으며 특히 죽세공예가 발달한



담양 채상은 잘 알려져 있다. 근대 이후 플라스틱 제품이 범람하면서 단절 위기에 직면했으나 전통 민속공예로서 그 가치가 높아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장도장 한씨는 보유자 한병문(1993년 지정) 장인의 아들로 낙죽장도(烙竹粧刀) 기능에 대해 탁월한 평가를 받아 2004년부터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됐다.

장도장은 사대부와 부녀자들이 생활용과 호신용으로 찾던 작은 칼인 장도(粧刀)와 칼집에 낙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칼집을 대나무로 만들고 명문장과 유명한 시(詩), 매화, 난초 등 사군자를 낙죽해 선비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낙죽은 대나무 겹집에 불에 달군 인두로 글씨나 무늬를 그려 넣는 것이다.

/오광복기자 kroh@

금화여성회, 장애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면학의 꿈을 잃지 않는 장애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15회 금화여성회(회장 나신영) 장학금 전달식(사진)이 23일 오후 3시 광주 CMB 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변지유(변지유 부피고 대표) 장애우 장학회 이사장, 최연주 광주시여성청소년 정책관, 김향자 전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등 금화여성단체 회원들과 여성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 6명에게 각각 100만원과 고등학생 8명에게 50만 원씩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백악플루트앙상블 대전 초청 공연



조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생들로 구성된 백악플루트앙상블(지도교수 노진자) 단원들이 지난 24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초청 공연을 펼쳤다.

이경진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학생과 교수, 전직 교사, 주부 등 2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24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앙상블을 모은 백악플루트앙상블은 이날 ‘사랑의 인사’ 등 3곡을 연주하며 감동스럽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전남대병원 ‘사랑 나눔 도서바자회’



전남대병원(병원장 송은규)이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사랑 나눔 도서바자회’를 개최하고 있다.

청소년문화가족과 함께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과 환자들에게 양서를 보급하고 불우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전남대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유아·아동용 책,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소설, 요리·건강책 등 200여종, 총 3000여권의 책을 전시해 시중 가격 보다 30~8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한 수익금의 25%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쓰인다.

송은규 원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병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뜻깊은 행사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전남대병원은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하고, 환자들이 감동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지적장애인들의 문화기부 영화관람



광주 지적장애인복지협회 가족 150여명은 지난 24일 광주 삼무지구 롯데시네마에서 한 독지기의 문화기부로 영화 ‘철기방’ 우수씨를 관람했다.

광주문예회관 문화예술교실 수강생 발표회



광주문예회관이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실 수강생(동요·발레·국악) 발표회가 지난 23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목포해양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목포해양대학교 안영섭 총장과 직원들은 최근 승선 생활관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이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오혁규(사업)·김성익씨 차남 두진(부산 해운대 백병원 의사)군 박광태(전 광주시장)·정말례씨 장녀 소은(서울 아라리에 101 디자인 회사 대표)양=12월 1일(토) 오후 6시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하 1층 하모니볼룸.

▲이찬배·서복현씨 아들 용우(전 남대병원 수련의)군 이재균(지과 원장)·이은교씨 딸 진아(전남대병원 수련의)양=12월 1일(토) 낮 12시 30분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박용·이화단씨 차남 근모나 나종남(법무사 김만일 사무소 사무장)·박운옥씨 차녀 차리양=12월 2일(일) 낮 12시 30분 서울 중구 종림동 1.W컨벤션(브라운스톤서울 3층)

▲이돈련(광주공고 동창회·학정서예원 고문)·심연순씨 차남 현중(부천 세종병원 심장내과 과장)군 노재각·배순옥씨 장녀 정현양=12월 8일(토) 오후 3시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그랜드볼룸, 피로연=12월 1일(토) 오후 5시 호텔 프라도 3층 에메랄드홀.

동창·동문회

▲재광 벌남 35회 동창회(회장 김군재) 정기총회=26일(월) 오후 5시 30분 맛가식당 062-523-5122.

▲2012년 광주 서석고 남구모임(회장 설연도) 송년회의 밤=27일(화)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프라도 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2012 광주공고총동창회장단(회장 김영진) 12월 회의(송년의 밤)=12월 5일(수) 오후 6시30분 리마다

호텔(3층 연회장) 062-511-9446.

▲광주·전남 한양인의 밤=12월 6일(목) 오후 7시 갤러리아 웨딩홀(광주시 서구 광천동) 부부동반 참석 환영, 모교 임덕호 총장님 참석 예정.

알림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권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

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프르레 학습증진건설팀 저소득층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적저하, 교육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010-6392-7137.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았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모집

▲송원초 2013학년도 신입생=원서 교부는 29일(목)까지 원서접수 및 면접은 28일(수)~29일(목), 주철입은 12월 1일(토) 오전 10시 원

서 다운로드 홈페이지(www.k-songwon.es.kr)

▲용마 축구클럽 회원=건강한 생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건강수지점 회원=매주 목요일 오후 2~3시20분까지.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전월요양보호사 교육생(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 분=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근무,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10-8072-2589.

▲광주FC 축구회원은 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부음

▲최승일씨 별세 동호(대우증권)·윤호(익소건축디자인)·진아씨 부친상 정남이(사랑약국)·김규연(차병원)씨 시부상 김근성(동아제

약)씨 시부상=발인 2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박경애씨 별세 유수택(새누리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민재·명희씨 모친상 신동식(전 서원건설 사장)씨 빙모상=발인 2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이창준씨 별세 철승(식약청)·정현(원자력병원)씨 부친상=발인 26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오옥남 님(여/79세) 子/子婦: 박희성/이현숙 女/婿: 박영숙, 경숙/이남수, 혜숙, 성숙/기세재 • 특선: 2011호 • 장지: 영락공원	故 이규환 님(남/52세) 子: 이종선, 종연 女: 이수지 • 호실: 401호 • 장지: 영락공원
故 정정숙 님(여/77세) 子/子婦: 서용원/박은자, 정훈/최순원 女/婿: 서정숙/이오성, 순복/박승준 • 호실: 402호 • 장지: 화순이랑	故 정옥순 님(79/세) 子/子婦: 김재환/최미진, 재호 女/婿: 김영주/이성철 • 호실: 101호 • 장지: 영락공원
마음까지 편한한 추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